

## 서사적 디자인의 발현(I)

- 레스토랑 양식을 통해 본 세계화 시대의 지역 디자인 -

Epic Design :Local Design in Globalization Era -based on Restaurant Style-

주저자 : 조현신 (Hyun Shin Jo)

동서대학교 디자인 & IT 전문대학원

## I. 문제 제기

## II. 현상 조망의 틀

- II.1. 일상문화 연구
- II.2. 세계화와 지역성 -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 II.2.1. 구체성의 상실-추상 공간화
  - II.2.2. 시공간의 압축, 공간의 분리
- II.3. 포스트 식민성에 대한 고찰

## III. 기억과 경험의 복원

- III.1. 정부에 의한 복원
  - III.1-1. 기념 건축물을 통한 재현
  - III.1-2. 이차원 공간에서의 복원
  - III.1-3. 일상 공간의 복원
- III.2 기업에 의한 복원
- III.3 개인에 의한 복원

## IV. 결론 및 향후 연구

### (Abstract)

This essay studies local design style in globalization era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restaurants which are located at suburb of big cities in Korea. All regional memory and history is disappeared in "The world time" and world design style in globalization era. Thus to study local design means to study the history of certain region and the memory of the people who lives in that area and how they represent their past and memory. Post colonial theory, everyday aesthetics and the way of using past and memory are pre-researched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Post colonial theory is discourse for the countries which have the experience of colonialism. History and memory are used for defining present political,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situation.

In this essay, the way using past and memory were classified in three dimension - by government, company, and individuals. The past which is represented by government is conceptual and defined as only sign without on going history. When it is represented by company, it is also uses as a sign and imitation without contextual meaning. However, when the past is used by individuals, it is alive in daily life. This essay argues that those restaurants which have the style of "the Koreaness" symbolize the suppressed desire to represent the lost past and memory which are forced to be exclud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fast modern development.

And the design style can be defined as epic design, for it has it's own main character, story, memory and plot too. This word 'epic' imply the main point of local design style. In conclusion, this essay will ask the role of design in the country which has colonial memory in globalization era.

### (Keyword)

Local Design, Globalization, Past

## I. 문제제기

한국에서는 대도시를 벗어나 어느 지역을 가진 변두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정한 양식의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기묘하게 과장된, 한국적이라 불리는 요소들 - 기와, 장독, 황토벽, 민화, 한지창문, 초가지붕, 지푸라기, 장승, 돌부처, 서낭당 모양새의 나무 등등의 극한적인 사용과 서구의 양식들이 결합된 건물들을 지나치다 보면 어색함과 더불어 억지스럽고,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을 지울 수 없다. 호미바바가 말 한대로 무언가 부적절한 모방과 비웃음, 얼버무림, 역설적 혼란이 파생되는 듯하다.<sup>1)</sup> 건축물은 공간적 기능에 의해 독해되어야 한다는 특성 이외에 보는 이에게 하나의 시각적 텍스트로서 읽혀진다. 즉 환경으로서의 건축물들은 어떤 함의를 내포한 텍스트로서 연구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도시 변두리 지역에서 드러나는 특정한 양식의 건물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정 시기에 한국의 도시 변두리 지역에서는 특정한 양식의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이것이 보편적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적 현상 이면에 스며있는 일상적 경험과 인식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텍스트로서의 건물과의 상관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특정 장소와 장소성에 관한 질문과 대답은 한 지역의 인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솔하게 썼다가 지워지는 양피지의 기록 같은 지역적 표상에는 한 시대를 산 인간들의 존재양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역적 표상을 지니고 있는 텍스트의 연구를 위해서는 한 지역의 장소성을 경험적, 역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즉 장소에 얽힌 시간, 행위, 타 지역과의 연관성등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인자로서의 장소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하이데거는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고 하였다.<sup>2)</sup> 장소는 단지 하나의 공간에 위치한 지점, 미래를 설계하는 기하학적 한 지점이 아닌 한 개체의 총체적 존재성이 스스로의 존재감의 깊이를 느끼는 실존적인 개념인 것이다.

21세기의 신자유주의는 일정한 라이프 스타일의 세계적 전파를 통하여 각 지역을 타자화 하면서 동시에 동화시켜 나가고 있다. 마치 20세기 제국주의가 종교와 근대화 이데올로기로서 제국의 물리적 영토를 확장시켜 나간 것처럼, 21세기의 신 자유주의는 국가간의 영역을 비 가시화 하면서 기호와 문화의 영역을 통해 전 지구의 동일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화적 확산과 접합, 상호 교호는 세계화의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세계화의 현상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로서 '장소성의 상실과 지역성의 소멸'을 들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집단에게 있어 집단적 소속감, 같이 공유했던 시간의 흔적, 기억의 잔존물 등이 각인되었던 공간이 원하지 않는 기획에 의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원하지 않는 대규모의 빠른 변화가 도시를 규정짓는 삶의 방식이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기적인 자연 리듬을 지닌 인

1) 릴라 간디, 『포스트 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 연구, 2000  
그녀는 식민지를 거친 국가의 시각 문화의 양식이 환기하는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2) 에드워드 켈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간은 그 대응 방식에 있어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이런 맥락에서 세계화의 현상 하에서 그 갈등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이 일정한 지역성을 띠는 형식으로 드러나는가 등의 의문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장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I)에서는 이론 연구와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구체적 현상을 범주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적 조망의 틀을 살펴보면, 지역문화를 범주론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제공하였다. 한국의 식민지 시대에 대한 기억, 그 재현 양상에 대한 인식 틀을 마련하기 위해 포스트 식민주의의 이론 및 세계화 이론의 몇 가지 개념이 고찰된 후, 일상 문화 연구의 의미와 가치 등이 문헌적 고찰을 통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헌 고찰과 더불어 케이스 스터디 분석과 연관이 있는 주제로서 기억과 과거의 재현의 형식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현실의 복잡다단한 양상을 반추하고 추상화하여 일반적인 양상으로 객관화한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를 갖는다. 연구 (II)에서는 케이스 스터디의 한 예로서 한국의 근대 100년간 장소성의 상실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장소성의 소멸과 주체의 대응형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II)는 연구 (III)의 심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 (III)에서는 특정 지역을 선택한 후 다섯 군데의 레스토랑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레스토랑은 지역적 선정을 거친 후 이미지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주인과 고객 인터뷰, 레스토랑 디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의미 평가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집단적 역사와 기억, 과거의 서사가 스며든 독해 가능한 텍스트로 설정된다. 이러한 텍스트는 개인들이 실제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상적 표상의 관계가 물질로써 현현된 대상이며, 주체이며, 행위가기도 한다. 이렇게 주체가 자신의 존재성을 가시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투여하는 경험과 기억을 텍스트로 설정하고 독해하는 것은 행위 주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좀 더 긍정적인 행위 주체자, 실천자를 제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발화된 것의 해석과정을 거쳐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문화적 실천 양태의 고양을 추구하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정인 것이다.

본 연구는 장소성에 대한 연구를 경험과 기억의 축적으로 확장하고, 그 경험의 일부로서 디자인을 조망했다는 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의 이천년 대 전반의 시각적 문화 현상이 한국인의 어떤 심상적 기억을 표출하고 있는가를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인공 환경의 시각성이 우리 시대의 정서를 반영하거나 표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II. 현상 조망의 틀

### II.1. 일상 문화 연구

문화 연구는 삶의 방식 즉 어떤 부족, 국민, 시대, 혹은 인류 전체가 지닌 특정한 삶의 양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때 문화는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상징체계와 그것을 창안하고 사용하는 능력으로 이해된다.<sup>3)</sup> 강내희는 그 동안의 문화예술연

3) 강내희 위의 책, p.95

구가 특정한 미학적 태도만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미학적 태도'는 특정한 형태의 표현에만 예술의 특권적 위상을 부여하는 배타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문화 예술적 실천은 이제 차라리 "변칙적인 것, 수량화할 수 없는 것, 비표준적인 것 혹은 표준화가 불가능한 것, 엉뚱한 것, 불완전한 것"등을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sup>4)</sup> 이렇게 그간 불완전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잔여물, 중심에서 소외된 삶의 양식들을 연구하는 것을 일상 문화 연구라는 틀로서 조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문화 연구는 대중 소비문화 연구에서 소외되어 조명 받지 못하는 곳, 하지만 일상이 재생산되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연히 이는 "평범한 실천을 지니고 있으나, 자신의 체도를 소유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현시할 이론적 영역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는 문화적 양태"<sup>5)</sup>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일상사 연구는 그 연구대상의 생산성과 문화적 실천에 연구 초점을 맞춘다는 면에서 일상에 대안적 특성을 제공한다는 특성이 있다.

일상은 자신의 욕망과 지향점을 능동적인 문화 텍스트로 드러낼 때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일상생활의 창조성을 완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문화 텍스트는 지배적인 문화 양식과 대치되는 방식일 수도 있으며 변칙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대응 방식이 지배양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간에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 귀속감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유지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가 소비와 구경, 일시적인 체험 제공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일상문화 연구의 화두는 이런 소비의 단계를 넘어선, 생산적, 실천적 의미에서의 문화양태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과 접맥되어 있다. 게다가 행위자와 수용자가 분리된, 형식미학적인 특성의 분석에만 치중되어 있던 대중 문화 연구의 한계를 넘어 일상의 경험과 실천이 행위자들에 의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한다는 면에서 일상이 지닌 잠재력을 집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 자체의 완성으로 향하는, 진행과 정지를 포함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 <sup>6)</sup>이렇게 전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일상의 경험은 다양한 일련의 사건 중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아 사유, 재 경험, 반추, 복원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상의 경험이 반복되어 재현된 결과물을 연구하는 것은 일상을 내러티브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주체의 존재성을 확고해 나가는 경로이기도 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정신자세와 '집단 표상'<sup>7)</sup>을 연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상성은 일반적으로 경험과 반복성의 양상을 띠면서 주체들에게 각각의 고유한 리듬을 형성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성과 지속성은 역사적 사건들 혹은 대규모의 외부 프로젝트와 충돌하

면 그에 압도당하면서 자신의 또 다른 진실한 측면을 드러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일상성이 세계화 현상 내에서 어떤 양태로 변화, 적응해 왔으며 현재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조명한다. 자연히 본 연구는 급속한 속도로 일상의 흔적을 지워야 했던 한국적 근대화 역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일상성 연구는 진행형인 문화적 양상 속에서 개인은 어떤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가라는 문제의식과 역사적, 집단적 특성을 지닌 문화의 속성을 동시에 연구한다는 면에서 세계화 시대의 지역문화 연구로 귀착된다.

## II.2. 세계화와 지역성 -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 III. 2.1 구체성의 상실 - 추상 공간으로의 변화

일제 식민 치하, 고향을 상실한 기층 민중은 억압에 의하여 이산(diaspora)과 변종(hybrid)을 겪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소설 고향에서 주인공은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옷을 되는 대로 끼입고 만주로 쫓겨가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소설 꺼삐탄 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성을 식민지 중국의 지배 세력권과 동화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sup>8)</sup> 이 두 유형은 강압적 식민지하에서 벌어지는 대응 방식의 계층적 이질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와 환경에는 일본에 의한 식민적 경험이 잔재하고 있으며, 각 개인은 전쟁과 산업화, 탈산업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일제에 의한 강압적인 변화와 그 이후의 일상의 영속성이 근본적으로 파괴되었던 전쟁, 산업화 과정의 전체적인 규율과 개발, 탈산업화의 시기의 급격한 문화적 변화가 한국인의 삶의 경험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행이 일종의 강제와 외압에 의해 행해졌다면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는 그동안 한국의 역사가 겪어야 했던 변종과 이산, 동화가 자발적인 습득과 향유의 과정으로, 지구 방위적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모든 나라의 산업화 과정의 자본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는 지역의 역사적인 용도, 지형학적인 조건과 사회적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한 지역은 단지 자본으로 사고파는 추상적 단위로 취급하는 계량적 공간으로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초기 산업화의 자본주의가 자본의 개입으로 물리적 공간을 추상화 시켰다면, 후기 산업사회의 추상화는 계량적 의미의 추상화와 더불어 미디어의 가속화된 발달로 이미지에 의한 추상화의 진전이 가속되어 가는 특성을 보인다. 즉 공간의 기하학적 추상이 진전되면서 동시에 물질 공간으로서 의미가 상실되어 가는 것이 가상공간이 생성되기 시작한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인 것이다.

또한 후기 산업사회의 전 지구적 양상인 세계화는 지역적 시간 감각을 상실케 한다. 이는 세계적 시간의 광범위한 유포라는 특성을 보이며, 정보와 영상을 일시적으로 압축해 세계의 실제 공간을 압축시키는 현상을 낳는다. 즉 "사물이나 장소의 입체감이 아니라 4차원(3차원 공간+시간)이 3차원을 대신하는 사건의 입체감으로 현현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제 존재는 기하학적 가치를 상실하고 명백한 원격존재가 사건의 본질을 압도하는 시청각의 입체감에 굴복하는 것이다."<sup>9)</sup> 시청각의 압도적인 지배는 다

4) 강내의 위의 책, p.

5) 장 미뉴엘 드 깨이로 「일상생활의 사회학」, M. 마페졸리, H. 르 페브르의, 「일상생활의 사회학」중, 한울 아카데미, 1998, p.102

6)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p.97

7) 데이비드 케너다인, 「굿바이 E.H. 카」, 푸른역사, 2002  
정신자세와 집단표상은 일상사와 전체로서의 역사 연구, 서술구조로서  
의 역사연구를 주창하는 이들이 역사연구에 궁극적으로 밝혀내야 할 태도, 방향등을 지칭한다.

8) 현진건, 「고향」, 전광용, 「꺼삐탄 리」, 채만식, 「치숙」 참조

9) 리처드 서넷, 「살과 돌」, 문화과학사, 1999, p.377

른 감각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추상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을 아라파두에는 미디어 스케이프에 의한 개인의 직접적 경험의 소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1)</sup> 즉 대중의 대부분은 탈물질화된 이미지의 무차별적이고 대대적인 공급에 의해 타인의 삶을 환상하며, 이 과정은 집단 상상력의 발동에 의해 일어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욕망의 대리적 실현만이 대중적 일상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리좀적(rhizomic)이고 '정신분열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한 세상은 한편으로는 뿌리 없음과 소외,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심리적 거리를 말해주는 이론들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적 근접성의 환상들을 요구한다<sup>12)</sup>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로서 관광 명소로 변한 드라마(전자 매체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의 촬영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이상형의 남성과 여성을 찾아 해매는 집단 여행객을 들 수 있다.<sup>13)</sup> 허구의 이야기와 이미지에 의한 장소성의 변화는 역사를 만들던 현지 시간의 상실을 뜻한다. 즉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일상, 생존의 사건들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한 집단 공동체의 역사에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단지 허구의 드라마가 실제 공간을 지배하여 실질적인 3차원의 공간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영구히 간직하는 4차원의 초 공간으로 박제되며, 그 공간은 소비와 타인의 행위를 경험하는 장소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때 "여행자들과 떠돌이들은 모두 소비자들이고, 감각을 찾는 사람들이며 경험의 수집가들로서, 세계에 대한 그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심미적인 것이다."<sup>14)</sup> 이렇게 생존 현장에서의 미적 체험은 실종되고 단지 고답적이며 이미지에 의한 미적 체험만이 감각의 실체로서 제공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세계화는 동시에 지역화라고 하는 역설이 성립된다. 즉 이미지의 지구적 유포는 그 이미지를 현실에 이식하면서 한 지역의 구체적인 장소성, 맥락성은 파괴되는 현상을 빚는 것이다.



【그림 1】 【그림 2】 사진 3】 드라마 <겨울연가>(2002년 한국)의 촬영장소 주인공들의 극중의 행위 모방, 남자 주인공의 이미지와 사진 찍는 행위 등을 통해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반복한다. 실제 커플의 결혼식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 III.2 시공간의 압축, 공간의 분리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은 시공간의 압축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비드 하비는 산업 사회를 지나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자본의 축적 양식이 유연적인 형태로 접어들면서 대 도시 중심의 자본은 문화산업에 의해 점령당한다고 했다. 이런 문화 산업의 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유연적인 축적은 그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세계적인 공간을 한군데에 축소하고 혼합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sup>15)</sup>

전 세계의 도시에 다국적 기업의 사업체가 산재하는 현상, 이미지의 확산으로 인해 문화적 우위를 점한 공간들의 이미지가 맥락이 전혀다른 도시나 지역에 이식되는 현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의 도시 각국에 산재한 맥도날드, 타코 벨, 스타벅스 등은 대표적인 예로이며, 전 세계적 규모의 쇼핑몰, 호텔 산업, 프랜차이즈 산업 또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대도시는 혼합과 변종을 통해 공간의 복잡성을 구성하는 한편 끊임없는 분리를 통하여 공간의 재구성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분리는 단지 물리적인 특정 공간에 대한 접근성의 방지뿐만 아니라 발전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대규모의 거주 단지, 기업체 빌딩 등의 디자인을 통해서도 실현된다. 근래(2005년)서울 삼성동에 세워진 <현대 아이파크 빌딩>은 그 디자인의 난해성과 일반인의 접근 불가능성으로 이러한 분리와 회피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조각물, 예술 품이라고 칭해지는 이 빌딩은 그 출입구가 어디인지, 출입구에서 다른 곳까지의 동선은 어떠한 경로를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 일반인의 상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그 빌딩의 내부에 근무하는 사무원들은 근무 공간에 대한 이질성을 느끼고 생활하면서도 근무지에 대한 우월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sup>16)</sup> 이와 같은 건물은 그 존재 자체로서 도시의 "차이와 무관심"<sup>17)</sup>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이다. 즉 대도시의 빌딩들은 공존, 대화, 작업의 장소가 아니라 시선의 유혹만을 부추기는 시각적 판타지의 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자연히 건물 들은 서로가 소외되며 서로에게 이질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대 거대 도시에서의 주요한 생존 전략은 공존이 아니라 회피와 분리이다. 이러한 현상을 지그문트 바우어는 오늘날 우리는 지구적 규모에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위계가

10) 폴 비릴리오, 『정보과학의 폭탄』, 울력, 2002, p.122

11) 아르준 아파두라이, 『고삐풀린 현대성』, 현문서가, 2004, 참조

12) 아파두라이, 위의 책 참조

13) 2001년에 방영된 한국의 드라마 <겨울연가> 의 배경 공간은 특히 일본 중년 여성 관광객들의 환타지를 충족시키는 장소로서 작용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행위를 재현해 보이는 행사가 유행이다. 이는 드라마의 이미지가 지역의 특정 장소성을 말소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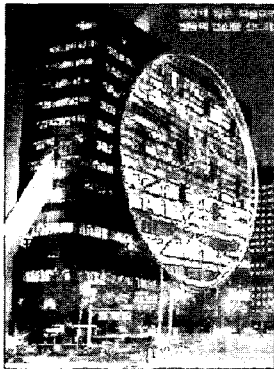
14) 지그문트 바우어 『지구화, 야누스의 두 얼굴』

15)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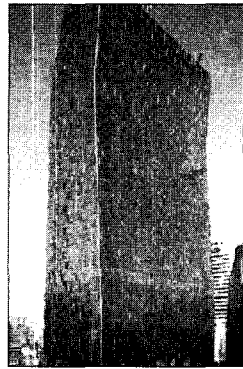
16) <건물이야 설치 미술이야>, 『시사저널』, 2005년 2월1일 시민인터뷰 내용 중

17) 리처드 서넷, 위의 책, p. 375

구성되는 과정에서 지구적 범위의 재계층화(restratification)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sup>18)</sup>고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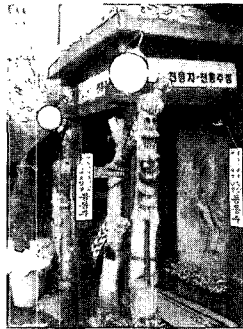
【그림 4】 삼성동의 현대 아이파크 타워



【그림 5】 을지로의 SK T 타워



【그림 6】 삼성동 아이파크 빌딩 앞, 코엑스 국화 잔치(2005.10)의 초기 모형



【그림 7】 인사동의 음식점

### II. 2. 3. 포스트 식민성

위에서 살펴 본 세계화 양상 이외에 한국 문화 현상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은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은 식민적 기억을 지닌 지역의 과거를 치료하여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과거로부터의 의미를 만들고 획득하려는 연구 분야로 정의된다.<sup>19)</sup> 포스트 식민 이론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이론을 거쳐 서구의 지배 담론과 과거 식민지국들 간의 상황이 변증법적으로 혼합된 시각의 이론을 지칭한다. 로버트 영은 포스트 식민주의의 이론을 트리컨티넨탈리즘이라고 호명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식민의 역사가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세 지역에 각인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특성을 이론화 하여 조망하는 지역적 이론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은 식민주의의 문화사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수반하며 식민주의가 서구문화와 트리컨티넨탈 문화에 끼친 오늘날의 효과를 조사한다. 자연히 포스트 식민적 비판 이론은 근본적으로 혼성적이며 그것을 낳게 한 문화들의 충돌의 소산이다.<sup>20)</sup> 그러므로 그것은

18) 바우어, 위의 책, p.143

19) 릴라 간디 『포스트 식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 연구, 2000, p.17.

식민적 역사와 기억을 당대의 문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결합시킨다.<sup>21)</sup>

본 연구의 실증적인 연구를 이론화하는 조망 틀이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과 맞닿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역사와 식민의 기억을 추적하는 측면에서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식민지배는 기층 민중의 생활에 대한 강제적이며 급박한 박탈을 수반하였고, 일본 식민 지배 이후의 전쟁 및 급속한 근대화 과정은 미국의 문화가 한반도에 이식되어 온 과정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근대화는 서구의 근대화가 자신의 지역적으로 고유한 전통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근대화를 이룩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러한 상이한 출발은 현재의 환경문화, 시각문화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레스토랑들의 양식은 그 원형이 조선의 농경시대에 근거하고 있다. 이 양식은 식민지 과정, 그 이후의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추방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 맥락에서 포스트 식민성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에 이론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 식민성에 대한 고찰은 단지 시각적 양상의 특성을 문화와 역사에 연결지어 추론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포괄적인 문화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텍스트들 사이의 경계를 만들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문화적 장소에 위치해 있는 텍스트들과 가치, 제도 실천적 방식 사이의 연관성을 만들어 내야 한다.<sup>22)</sup>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 문학에 드러난 기억의 상실감에 대한 고찰 역시 시각 문화 연구와 연결되어 있다.

### III. 기억과 경험의 복원

전통은 현재의 필요에 의해 불러 나온 선택적 과거이다. 모든 집단은 각 집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개개인의 유한성을 넘어 스스로를 영구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sup>23)</sup> 이 수단을 통해 각 집단은 한계성과 일시성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를 복원하는 방식에 대해 자신만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험과 기억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존재성에 유기적 통일감을 구성한다. 즉 "외적인 구체물이 없으면 인간의 경험은 불완전한 상태로 남게 된다."<sup>24)</sup> 자연히 인간은 경험의 패턴을 재조직화하면서, 자신의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활동 중에 일상적 의식은 약동과 발달성을 획득하면서 재생산의 힘을 얻는다. 이렇게 현재에서 과거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과거의 복원은 복원의 시기, 복원의 주체에 따라 상이한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현 혹은 복원의 수단은 물리적 공간에서 권력의 균형관계에 의해 그 지형학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물리적 공간에 남아 있는 과거의 재현, 복구의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그 방식이 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20) 로버트 영, 『포스트 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박종철 출판사, 2001, p. 33

21) 로버트 영, 위의 책, p.119

22)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P.33

23)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1995, p.129

24)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p.97

가를 해석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 III.1. 과거의 의미

**III.1.1 부동의 장소 :**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으로서 부동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즉 형성되어버렸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잘 되었건 못되었건 미래가 지닌 유동성, 불안정성과 대비된다. 이러한 부동성은 특히 격변하는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이미 장악되어진 것, 그런 이유로 평안을 주는 역할을 한다.

**III.1.2 집단 정체성의 확인 :** 공통된 경험과 공통된 체험은 개인에게 한 집단으로서의 소속감을 제공해준다. 특히 한 공간과 한 시간대에 시련을 같이 겪었다는 점, 어떤 성과를 같이 이루어냈다는 면 등은 집단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III.1.3 노스텔지어의 제공 :** 향수란 과거에 대해 고통과 죄책감이 사라진 기억을 말한다. 이는 과거를 가장 이상적인 시간, 공간으로 떠올리게 만들며 이 기억은 세계와 개인, 세계와 한 집단이 아무런 이질적인 요소 없이 하나로 융화되어 있었던 시기로 여겨진다.

### III.2. 과거로부터 획득되는 것

**III.2.1 개인 경험의 보편화 :** 과거를 복원하거나 재현, 혹은 상기하는 것은 각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보편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순간을 경험한 개인들은 이것이 공공적으로 복원되거나 재현되면 자신의 개별성이 보편성으로 확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곧 주체의 확장이라는 환상을 제공해 줌과 동시에 타인과의 공유의 장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III.2.2 안정감과 교육 :** 현재가 다시 과거로 재현될 것이라는 무의식적 동감, 이미 과거는 현재에 안정된 장소로 선택되었으며 그것은 현재의 상황을 미래를 향해 긍정적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III.2.3 개체의 불멸성 :** 한 개체의 삶은 유한하며 일시적이나 복원된 과거는 항시적이므로 개체보다 오랜 기간 존재하리라는 믿음을 준다. 이러한 믿음은 개체의 유한성을 넘어 종적 지속성, 불멸성을 확인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 III.3. 과거를 복구하는 시기

**III.3.1 자신의 독창성을 증명해야 할 시기 :** 한 개인이나 집단의 존재성에 타인과의 차별성을 부여해야 할 경우 과거의 이미 지나 위용을 이용한다. 2002년 한국의 월드컵 경기장의 모든 설계 디자인 컨셉이 조선조의 시각성에 바탕을 둔 한국성을 상징한 것은 '세계에서의 한국'이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과거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예이다.

**III.3.2 현재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기 :** 과거는 현재가 행복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단지 낭만적 채색을 띠면서 복구된다. 하지만 미래로 향하던 현재에 균열이 일어나면 그 균열은 현

재의 잘못된 점을 보이게 만든다. 이때 현재의 잘못을 복구하기 위해 과거를 상기하고, 그것을 재현하는데 이는 현재의 잘못이나 부조리를 시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미래와 현재 사이에 초 공간, 초 시간적으로 존재한다.

**III.3.3 현재가 급속히 변화할 때 :** 현재의 급속한 변화는 자연히 일상적 리듬의 붕괴와 더불어 무난한 현실적 적응에 혼란을 초래한다. 이때 과거는 부동의 장소로서 현재에 복원되면서 현재의 변화와 속도에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급속히 다가오는 미래를 피하고 싶은 무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 의미를 가지고 과거는 끊임없이 현재에 복원되고 있다. 당연히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거의 복원을 우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복잡하고 미묘한 '간직하기와 지우기'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과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미래와의 사이에 끼어든다. 특히 식민적 기억을 지닌 국가에서의 과거의 복원은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침략당하고 추방된 기억을 다시 불러온다는 면에서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를 복원하는 방식은 그 주체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주체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연구 후반의 지역성 조사에 대한 기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I. 4. 주체에 따른 과거 복구의 특성

#### III. 4.1. 정부에 의한 복원

근대국가가 탄생하면서 집단적으로 민족의 기억과 경험을 대규모로 복원하려는 작업은 기념물의 보존, 박물관 건립의 작업으로 총체화 된다.<sup>25)</sup>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오히려 공간의 맥락적 특성을 말살하고, 실제적 잔여물을 소거하는 작업과 연결되면서 일상사의 두터운 혼란성, 불투명성, 잔존물, 잉여를 소진시킨 균질화 된 기억만을 양산할 뿐이다. 정부나 대기업에 의한 전통 이미지의 복원작업, 월드컵 축구장에 도입된 전통적 이미지 역시 기억의 박제화적인 복원, 과거의 신비화라는 한계를 보여주며 상상적인 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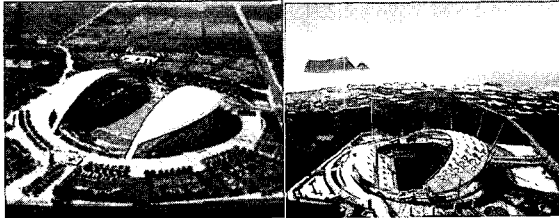
#### III.4.1. -1 기념 건축물을 통한 재현

건축과 공간, 조형물을 통한 정부의 과거 복원은 그 단위가 대규모적이며 추상적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국가의 정체성을 단일화하여 시각적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웅장한 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해 애쓴다. 이러한 이미지의 복원은 영웅, 진취성, 웅대함, 미래, 공동체 등의 추상적인 가치를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귀착된다. 해방 이후 정부에 의해 지어진 어떤 기념비적인 건물을 보아도 공통적인 성향으로 드러난다. 특히 2002년 전국적으로 건립된 월드컵 경기장은 모든 장소가 한국성이라는 화두로 진행되면서 그것

25) 베네딕트 앤더슨, 「센서스, 지도, 박물관」, 『상상의 공동체』 중, 나남출판, 2003, 참조

을 시각화하였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전통의 형상화는 특히 공간적인 재구성의 경우 그 시각성이 추상화 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대국민적인 교육에 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전통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전통이 단지 국가적 일치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인다는 면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교육에 의한 형성이라는 베네딕트 앤더슨이 지적한 '상상의 공동체'를 위한 도구로 해석될 수 있다.<sup>26)</sup>



【그림 8】 월드컵 상암 경기장 조선시대 경기인 고싸움의 모습을 형상화 했다.

【그림 9】 월드컵 제주 경기장 제주도 전래의 어선인 태우를 형상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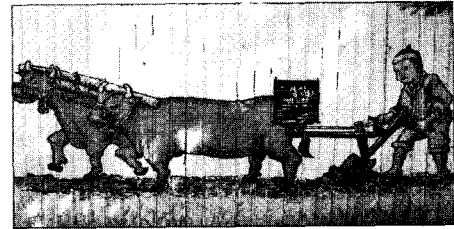


그림 11.12.13] 서울 영등포구 구청 근처의 담 - 이조 농경사회의 모습



【그림10】 월드컵 경기장 홈페이지 : 정부가 건축물을 통해 과거를 재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상징화와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 재현한다.

### III.4.1-2. 이차원 공간에서의 형상화

이와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시각적 사실 묘사에 충실한 과거의 복원을 들 수 있다. 이 경향은 특히 평면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두드러지며 이때의 주제는 대부분 농경 사회의 공동체적 정감이나 가치, 전통적 상징물을 그대로 시각화 하는 경향으로 드러난다. 이 때 주로 사용되는 공간은 도로의 벽면, 축대 등이다. 이 공간은 상업적 가치로 환산되는 개인의 용도가 아닌 공공의 구역이라는 면에서 정부나 관공서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공간은 이중적 면모를 지니는데 즉 상업성의 논리인 시선의 자극에 대해 무관할 수 있다는 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대중의 정서에 대해 무책임한 결과의 조형성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공공 교육, 혹은 집단 의식의 한 단면만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현대 벽화 중 40%는 전통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sup>27)</sup>

### III.4.1-3 일상 공간의 복원

정부에 의한 재현의 또 다른 예는 근대화의 물결에 의해 사라진 일상의 환경을 그대로 복원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경북궁 내 민속 박물관 앞에 복원된 과거의 흔적인 솜틀집, 사진관, 구멍가게 등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에 의해 사라진 주거환경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 기억의 역할 중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과거를 감성적인 대상으로 반추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일상이 급박하지 않는 경우에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경북궁 내에 복원된 70년대 도시 공간의 모습은 한국의 도시화, 산업화에 의해 추진되던 급박한 시민의 일상이 이제는 완만한 리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재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현대화의 결과를 이룩해낸 세대에 대한 상찬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재현된 일상적 결과물을 통해 그 세대의 일치성과 단결을 재확인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공간은 형상화된 과거를 집단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공유가 자아내는 구성원간의 친밀감을 유발하기 위한 공간인 것이다. 이 공간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박물관에 전시된 대부분의 유물이 지배와 권력과 관련된 것들을 전시하는 공간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일상과 대중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기록의 흔적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그림 14.15】 경북궁 민속 박물관 앞에 복원된 근세 과거의 모습

26) 베네딕트 앤더슨, 위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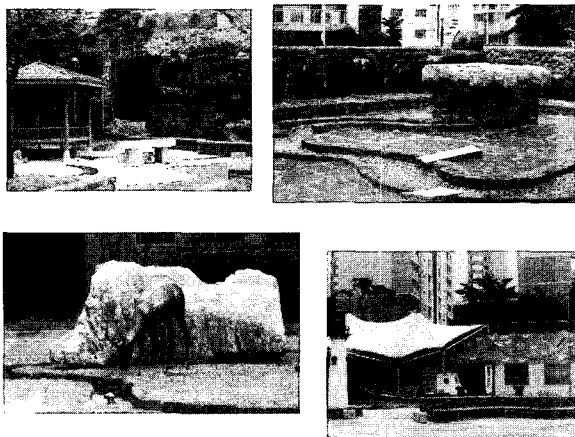
27) 김영희, 정성득 「우리나라 지하철 벽화에 나타난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통권 39호



### III.2 기업에 의한 복원

한국의 근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1930년대 이후 서구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항상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제시되었다. 분야를 막론하고 기업은 서구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광고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반면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청산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향수는 “한국적(Koreaness)”이라는 어조로 돌아오곤 했다. 주거 양식의 다양화가 전개되기 시작되던 1990년대 후반 대기업 주도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주거 양식에 결부시키는 풍조는 이러한 과거 복귀의 한 양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례로 아파트의 명칭에 한국성이 가미되기 시작하였는데 단순한 명사형 아파트의 명칭에서 한국의 전통적 정서를 환기시키는 이미지의 이름이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경희루의 아침”, “낙천대”, “래미안”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디자인 컨셉에 맞추어 조선 사회의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재현되기 시작하여, 우물의 형상, 노루와 사슴의 조각, 빨래터, 정자, 한국 창살의 무늬 등이 아파트의 테마 공원에 재현되었다.<sup>28)</sup> 이러한 주거 단지에 복원되는 빨래터나 우물, 정자 등은 과거 농경 사회의 한 마을의 공동체성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하던 곳이었으나, 이러한 장소 성들은 현재 주위의 시각성과는 아무런 맥락적 공유 없이 단편적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한예로 한 지역에는 조선조 농경시대의 상징적 장소와 함께 로빈 후드의 동굴이나, 사갈의 오솔길, 마네의 산책길들이 병렬되어 있기도 하다.<sup>29)</sup> 이렇게 재현된 것들은 의미를 상실한 단순한 기표이며 시각적으로 재현된 하나의 허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에 대해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sup>30)</sup>



【그림 16,17,18,19】 래미안 아파트 테마파크 공원 (서울시 중구 중림동)

### III.3 개인에 의한 복원

개인에 의한 과거의 재현은 그 규모가 매우 작으며 일상적으로 소유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장식물, 한복, 전통 가구, 전통

28) 서울시 중구 중림동 래미안 아파트

29) 경기도 평촌의 래미안 아파트

30) 래미안 아파트의 주민 할아버지(68세)는 비록 그것이 상징적이며 모양새만 있는 것이지만 현대적이고 생소한 환경 속에서 과거의 것들이 모사된 채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느낀다고 하였다. (2002년 서울시 중구 중림동 소재의 래미안 아파트 주민 인터뷰 중)



【그림 20,21,23】 인사동의 전통물 상가



【그림 24】 서울 근교 장흥의 음식점

농기구 등을 소유하면서 개인은 과거의 유물이 지닌 색채, 질감, 형상, 소리 등이 내포하고 있는 아우라를 음미한다. 개인에 의한 복원은 이와 같이 작은 장식물, 의복 이외에 본 논문에서 케이스 스터디 지역으로 선정한 도시 근교에 전통을 기초로 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복원되는 건축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건물들은 음식점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런 전통적인 형식의 음식점들은 그 주변의 한층 뚜렷한 “식민적 모방”<sup>31)</sup>의 양식들, 모던 건축 양식과 시각적 충돌을 빚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가 압축적으로 표현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산과 변종, 혼합의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역사적 주체의 분열 혹은 변종, 콜라주 성과 함께 특히 단선적인 지역적 시간의 상실을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시각적 분열증을 보이는 현상을 데이비드 하비가 지적한 대로 후기 자본의 유연적 축적 전략인 시공간의 압축화 현상으로만 본다면,<sup>32)</sup> 이러한 장소는 후기 자본의 세계적 이동의 숙주로서만 위치지어질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곳을 생성한 하위 주체들의 실천적, 행위적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규명하고 있다.<sup>33)</sup>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과거의 복원은 정부나 대기업에 의한 복원이 지닌 부동화 되고 정지되어 단지 기호로만 읽혀지는 과거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양식이 지닌 능동성과 보편적 미감으로의 승화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IV. 결론 및 향후 연구

지역성이란 기억과 경험, 구체성과 역사를 말한다. 이는 한 집단이나 개인이 특정한 지역에서 시간을 따라서 쌓아 놓은, 독보적

31) 릴라 간디 『포스트 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p.182. 호미 바바는 식민지를 거친 국가의 시각적 양상을 “거의 같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그렇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하고 있다.

32)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7 참조

33) 하위주체 : 본 연구는 대도시 중심의 문화를 상부로 설정, 변두리 지역을 하위 주체라고 설정하였다.

특성을 지닌 지닌 누적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성을 연구한다는 의미는 그곳의 주체의 기억을 연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그 지역의 주체를 통해 형상화된 모든 것들의 상징성 및 의미를 추적해본다는 뜻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변두리 지역을 세계화 시대의 지역(local)으로 선정한 후 그 장소에서 생겨난 특수한 건축 양식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 드러나는 특정한 양식의 건축스타일을 서사적 디자인의 발현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세계 디자인이 서구의 감성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인 정서에 호소하는 디자인 양식을 선 보인다면, 서사적인 디자인은 그 지역의 이야기와 주인공, 그들이 지어내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대 도시 부근의 특정 공간에 들어서면 모든 건물이 식민 사회의 특성인 부적절한 모방의 표상으로 읽혀진다. 그리고 그것은 호미 바바가 말했듯이 비웃음과 열버무림, 역설적 혼란을 파생한다.<sup>34)</sup> 본 논문은 이러한 관찰자의 경험이 과연 생산자, 행위자의 실천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가에 대한 의문, 가속화되는 세계화에서 이런 양식이 어떤 시각적 실천적 대응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공간은 그동안 세 가지 측면에서 시각 문화 연구에서 소외되어 왔다. 첫 번째로 주변과 상충되어 이질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키치적인 미학을 형성하고 있다는 면, 둘째로는 개인의 창조성을 발휘한 건물이 아닌 전통적 양식의 적당한 혼합이라는 면, 세 번째는 근대 미학의 통일성을 전제로 하는 정체성 표지에 실패한 대상물이라는 면에서 이다. 단지 이러한 장소는 보편적 미감에 공감되지 못한 채 소외되고 이질적인 공간, 키치적인 특수한 공간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양식들은 생산자들 자신이 그들의 경험을 승화시켜 보편적이며 호소력 있는 미감의 창조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소개주의로서 과거를 복원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끊임없이 시각적 충동을 자아내는 한국의 시각문화의 근본적인 근원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 질문의 감정적 대답은 제대로 극복되거나 재창조 되지 못하는 과거에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다음의 질문은 당연히 이 질문과 연관되어 현재 한국의 디자인 교육과 일상적 디자인 정서에 대한 의문으로, 현재 한국의 시각 환경이나 주거환경은 한국인의 일반적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혹은 제시하고 있는가. 정체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의 발현을 떠나 일상을 영위하는 개개인들에게 한국의 시각 환경은 우리 체험과 일상에 맞는 긍정적 의지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그 답을 보여주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과거를 복원하는 방식과 주체에 따른 이질성을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개인에 의한 과거의 자발적인 복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일상성 안에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 일상적인 삶의 양식으로 과거가 현재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면 과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극복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억눌려 있던 것뿐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억누르는 시각적 양식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제기 되어야 하며 이 양식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검

토가 이루어져야만 미래와 현재 사이에서 자꾸만 재현되는 과거 양식에 대한 가치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 논문은 영화와 소설, 드라마 등이 한국인의 현대적 정서를 반영하여 한국의 블록 버스터를 만들어내는 동안 한국의 시각 환경은 과연 무엇을 화두로 하여 진행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한국의 시각문화, 환경 디자인은 아직도 서구의 기법과 미학을 추종만 할 뿐이 땅에서 요구되는 기억과 일상적 체험, 서사성과 이야기, 미적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고 있기에 국토 곳곳이 시각적 충동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는 과거의 급격한 실종이 초래한 개인의 무기력과 상실감을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통해 살펴 본 후 이러한 상실감이 나중에 어떤 시각형식을 통해 되살아나는 지에 대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은 일상의 생활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창조행위이며 미적 쾌감을 주는 행위이다. 한 지역의 체험, 기억과 미감이 제대로 반영되고 그것을 미래로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 땅이 처한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제대로 독해하여 현재의 실천에 연결짓는 작업이 필요하며 본 논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디자인의 일상적 미학 실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릴라 간디 「포스트 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 연구, 2000
- 로버트 영, 「포스트 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박종철 출판사, 2001,
- 장 마뉴엘 드 게이로, M. 마페졸리, H. 르페브르의,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1998,
-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 세상, 2003,
- 데이비드 케너다인, 「굿바이 E.H. 카」, 푸른역사, 2002
-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중, 남출판, 2003,
-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1995,
-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책 세상, 2003,
- 지그문트 바우어 「지구화, 야누스의 두 얼굴」, 한길사, 2003
-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2000
- 아르준 아파두라이, 「고삐풀린 현대성」, 현문서가, 2004
- 폴 비릴리오, 「정보과학의 폭탄」, 울력, 2002,
- 리차드 서넷. 「살과 돌」, 문화과학사, 1999
- David Lowenthal,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Cambridge, 1985
- Mike Featherstone, 「Undoing Culture」, SAGE, 1995
- Andrew Light and Jonathan Smith (Edi.), 「The Aesthetics of Everyday Life」, Columbia Univ Press, 1994

34)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소명, 2002 참조